등록번호	문화유산과-9922
등록일자	2021. 07. 15
결재일자	2021. 07. 15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종무팀장	문화유산과장
유선영	임경호	김기택

21. 7.

팀 장 : 학예관 임경호 (☎ 3906)
담당자 : 행정9급 유선영 (☎ 2456)

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

문화체육관광국
(문화유산과)

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

최종보고회 결과보고

1. 보고회 개요

○ 일 시 : 2021. 07. 12.(월) 14:00~16:00

○ 장 소 : 도 중회의실(510호)

○ 참 석 : 자문위원, 문화유산과, 보령시, 용역사(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) 20명

- 자문위원 : 김충식(전통대), 이영진(공주대), 김동규(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), 심응섭(순천향대), 이진규(네이처디자인), 엄정호(고려전문학교), 최은철(성균관대)
- 도 : 문화체육관광국장, 문화유산과장, 종무팀장 등
- 보령시 : 관광과장 등
- 용 역 사 : ① 학술·연구용역 : (재)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(대표 용역사) ② 도시계획 : 도시공간엔지니어링 ③ 조경 : ㈜비에스환경디자인그룹 ④ 건축 : 아인디자인건축사무소

○ 주요내용

-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 공유 및 검토
- 비림공원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 관련 비림공원 자문단 자문위원 의견수렴

2. 진행 흐름

시간계획			내 용
부터	까지	소요(분)	
14:00	14:02	2'	•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
14:02	14:05	3'	•위원소개 및 위원장 인사말씀
14:05	14:50	45'	•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
14:50	16:00	70'	•최종보고 검토 및 자문
16:00	16:01	1'	•폐회

3. 자문.검토 의견 요약

○ 심응섭(순천향대학 명예교수)

- 문제 제기

① 충남정신 반영정도의 심도성

② 비림공원조성 기본기획의도와 최종보고 기획안이 얼마나 근접한가

③ 비석과 비석문 글씨와의 연계성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

- 돌(오석)문화 콘텐츠 선택적으로 반영할 것
-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것
-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콘텐츠를 선정해 반영할 것'

※ 명칭에 '보령' 지역명을 넣을 것

○ 이진규(네이처디자인 대표)

- 충남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문화공원(K-Park)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임
-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
-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문화상품의 개발, 판매, 전시 및 체험공간이 조성되었으면 함
- 단체관광객의 방문을 대비해 전기차를 이용한 셔틀버스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
- 공원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친환경 유지관리 방안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

○ 이영진(공주대 교수)

- 최종보고회 내용의 완성도가 매우 높음
- 인근 국유지, 시유지와 연계계획 수립 시 급경사의 문제점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보임
-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 필요
- 모노리스 조형물인 광개토대왕릉비와 오석 Hall의 사이즈를 더 키울 필요가 있어보임
- 경제적타당성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 됨

※ 명칭에 '보령' 지역명을 넣을 것

○ 엄정호(고려직업전문학교 교수)

- 전체 스토리텔링 부분은 추후 시간이 지나도 낙후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스토리 개발 및 업데이트 필요
- 장기적인 재방문을 가능토록 하는 시즌별 변화된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미디어 soft콘텐츠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집중적인 콘텐츠 개발비용이 반영되어야 함
- 개관이 될 2~3년 후는 메타버스시대가 열리는 시기이므로 이에 맞는 XR앱과 내용을 통해 과거-현재-미래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개발 할 필요가 있어보임
- 회랑과 모노리스등의 미디어 아트와 기존 비석의 스토리를 재해석해 선도적인 콘텐츠가 "ART"적 방향으로 제시되었을 때, 자연스러운 '모뉴먼트'와 '킬링콘텐츠'가 될 것으로 예상됨

※ 명칭 : '(보령)빛돌숲 공원'이 적합

○ 김동규(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)

- story 동선, 전시물의 표현기법 구체화 필요
- XR콘텐츠와 모노리스가 연동될 필요가 있음
- 많은 비석을 놓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, AR기법을 통해 비석을 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극복 필요
- 모노리스의 크기와 높이를 증가시키는 등 주변도로에서 빛돌숲 공원이 표시될 수 있는 Landmark적 요소 필요
- Art 브릿지의 경우, 향후 설계에서 곡선의 형태 등 예술적 요소를 가미 필요
- 경영과 운영적 측면에서 'ESG' 개념의 도입 필요
- 보령은 석공예 산업의 거점지역으로, 비림공원에 주변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요구됨

○ 김충식(전통문화대 교수)

- 관광명소의 개발은 유일성, 낯설음이 중요한 요소임
  : 낯설음은 다른 곳 또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서 벗어난 것을 줄 때 발생하는데 현재 비림공원 조성안에 이러한 요소가 부족해보임
- 2019년 개장한 서울 서소문 성지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, 오석홀은 20M가 되지 않아 크기가 경험에 낯설음을 주지 못함. 따라서 크기는 30~40M, 높이는

15M가 적절해보임

- 전시공간은 콘솔레이션처럼 비움을 통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 전시홀을 채우는 전시가 아닌 '공간'을 비워서 '공간'을 전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

○ 최은철(성균관대학교 외래교수)

- 접근성 및 확장성의 한계로 새로운 적합지 모색 필요
- 비석 재현팀 별도 구성 필요
- 운영측면에서 공무원 외 석공예 관련 종사자 상주할 것
- 시각적으로 눈에 띌만한 장소에 광개토대왕릉비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비석을 배치해 상징성을 높일 것
- 역사공원으로 의의를 정립한 것은 매우 의미있어보임. 그러나 원형을 살리고 재현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므로 미디어아트와 접목했을 때 '변환'은 좋지만 '변질'로 가지 말 것.

※ 명칭 : '보령오석비림' 등 적합한 명칭 재고 필요

○ 이건호(문화체육관광국장)

- 비석, 비문제작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하고, 제작비용도 아끼지 말아야 함
- 명칭부분에서 '겨레'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보임
- 비림공원 운영주체 관련 보령시와 논의(합의)필요

○ 김기택 (문화유산과장)

- 화장실, 편의시설 추가 필요
- 비문 엘리베이터 주변 노출로 인한 대책(지붕 등 필요)

○ 김계환 (보령시 관광과장)

- 전시관에 보령 석공예 단체 활동공간 배려 필요
- 명칭에 "보령" 추가 필요
- 비림공원 조성시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체험·교육 배려 필요

4. 향후 계획

○ 비림공원 조성 연구용역 완료(2021. 7. 16.)

○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

-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컨설팅(충남연 : '21. 7.)
- 22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확보(15억원)

○ 비림공원 조성 공사 추진('22~'24년)

○ 비림공원 개관 및 운영('25년)

붙임 1. 최종보고회 사진







